

전 한국천문연구원

오병렬 부장



오병렬 부장과 인터뷰 약속을 잡기 위해 전화를 했다. 등산을 자주 다니는지라 괜찮다면 우면산에서 만나도 되겠냐고 한다. 산 중 인터뷰라...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이다. 혹시나 싶어 등산화를 챙겨 신고 약속 장소인 남부터미널 앞으로 향했다. 터미널 앞에서 잠시 기다리자니 등산복 차림으로 나타난 오병렬 부장. 우면산으로 향하기 전 커피숍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자주 가다보니 지금은 업이 되었어요. 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정기 산행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됩니다. 서울 근방의 산은 최소한 하루 쉬고 한 번은 가요. 대충 일주일 중 3, 4일은 산에 간다고 보면 됩니다. 젊어서는 산을 몰랐어요. 그때는 오직 천문대 만드는 것, 그 일념만으로 젊음을 보냈죠. 소백산천문대에서 근무하면서 수백 번 올라 다녔지만, 특별히 산에 다닌 적은 없어요.”

천문연구원을 퇴직한 지 10년. 일선에서 물러나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다. 그때 친구들이 산악회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시작한 산 생활에 지금은 완전히 빠져버렸다고 한다.

“재밌어요. 산에 빠져 많이 다녔지만, 아직 못 가본 산이 많아요. 워낙 많으니까요. 올해는 경상도 쪽 산을 다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많은 산을 다녔다면 특별히 좋아 하는 산도 있을 법 하다.

“다니다보면 아주 깨끗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산이 있습니다. 선인들이 산에서 풍류를 즐기고 심신을 단련했다는데,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산이죠. 산마다 맛이 있어요. 어떤 산은 별로 멋도 없고 맛도 없는데, 어떤 산은 정말 깊은 맛이 납니다. 문경의 주흘산이나 강원도 정선과 평창에 걸쳐있는 가리왕산이 그런 산입니다.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을 따라 걸으면 정말 심신이 새롭게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설악산도 아주 좋아합니다. 정말 명산이죠. 5월 중순에 공룡능선을 가면 빨갭게 피어나는 진달래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산마다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그 맛에 산에 다닌다고 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1974년 국립천문대가 발족하고, 그 이듬해

인 1975년에 오병렬 부장은 소백산천체관측소(현 소백산천문대) 초대소장으로 취임했다. 소백산천체관측소 건립에 얽힌 여러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처음에는 서울 근방에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의에서 윤세옥 위원이 소백산이 아주 좋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답사를 갔습니다. 현재 소백산천문대가 위치한 곳이 제2연화봉인데, 일본 동경천문대 오카야마 천체물리관측소 부소장인 이시다 고로 박사가 아니었다면 소백산 최고봉인 비로봉에 만들어졌을지도 몰라요.”

자문을 위해 초청한 이시다 고로 박사는, 아무리 천문대도 좋지만 저 아름다운 곳에 천문대를 지을 수 있느냐며 비로봉보다 제2연화봉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놨다.

“만약 그때 그런 자문을 듣지 못하고 결정을 내렸다면 아름다운 비로봉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천만다행인 일이지요.”

망원경 기종 선정에도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다. 현재 설치된 61cm 반사망원경과 15인치 굴절망원경이 결합을 벌인 것이다. 결국은 기명 투표 방식의 표결에 부쳐서 결정을 내렸다.

“설치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잘 작동하는 걸 보면 그 당시 판단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 9명, 행정 9명, 보조원 9명 합해서 27명으로 발족한 작은 기관인데, 천문대 하나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당시에는 그렇게 잘 살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선조가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지금 하늘을 올려다 볼 능력이 없으면 무엇 하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문대를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을 갖고 제가 가진 모든 걸 쏟아 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은 천문대와 망원경이 우리나라 현대 천문학의 작은 밑바탕

이 되었다는 데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얼마 전 세계 천문의 해 선포식에서 건배 제의의 자리가 주어져 매우 기분이 좋았다는 오병렬 부장은, 짧은 순간 소백산천문대 건설할 때가 생각났다고 한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 오늘날 이렇게 화려하게 꽃피우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당시 동료들을 만나면 지금 천문연구원이 여러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소백산천문대에 망원경이 설치되고 처음으로 사진 관측이 이루어진 것은 1975년 12월 27일이었다. 당시 촬영자는 바로 오병렬 부장이었다.

“첫 번째 사진을 얻기까지 쉽지는 않았습다. 설치가 잘 못 돼 다시 설치하고, 갖춰진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찍은 사진을 암실에서 현상하려면 물이 필요한데, 먹을 물도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해를 시행착오를 거쳐 첫 번째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상은 오리온 대성운이었죠. 밤새 촬영하고 암실에서 작업한 사진을 갖고 서울까지 갖고 올라왔습니다. 사진건판에 이미지가 보이는데, 그때 그 감정이란 뭐라 설명하기 어렵네요. 이제 이 망원경이 제대로 움직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병렬 부장은 후배 천문학자들에게 천문학에 전력투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운동이던 꼭 운동을 하길 당부한다.

“죽을 때까지 천문학만 할 수는 없거든요. 나중에 무엇을 하든 필요한 건 체력이더군요.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지내다 이제야 시작했습니다. 젊어서부터 조금씩 체력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한다면,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 큰 자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병렬 부장이 자란 곳은 광주이다. 지금은 광역시지만 어렸을 때 광주 변두리는 시골이었다고 한다. 그 시절 밤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본 별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천문학을 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동기가 된 건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입니다. 대학에 입학하려고 원서를 기다리던 때였죠. 신문마다 우주 시대가 열렸다는 제목이 대문짝만 하게 보이더군요. 그래서 천문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천문학 역사와 함께한 오병렬 부장의 천문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주변에서 회고록을 써보라는 분들도 많아요. 그 동안 여러 곳에 회고록 비슷한 글은 많이 썼습니다. 그 정도로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앞서 운동을 하길 권했는데, 글을 쓰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메모판에 적었던 짧은 글들을 다 버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아쉽더라고요. 큰 흐름은 기억나는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기억을 못해요. 요즘은 메모하고 글을 써서 남기는 습관을 들이자 해서 수시로 메모를 합니다.”

커피숍을 나와 산으로 향했다. 날씨는 겨울답지 않게 온화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산책하듯 가볍게 걸어 올라갔다 잠시 얘기를 나누고 내려와야 했다.

사람이 세상에 왔다 가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다는 오병렬 부장. 짧지만 평일 도심 속에서 산행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